

【나의 책 나의 학문】

# 나와 한국 문헌학의 체계

유탉일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I

나는 만학이었다. 우리가 살던 소년 시절은 해방과 육이오를 겪느라고 제대로 공부하기란 힘든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 시절을 순탄하게 넘기지 못하고 스물 넷에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것도 곧장 군대에 입대하였다. 마침 학적 보유병으로 1년 6개월의 최전방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여 복학하니 나이 스물 여섯이었다. 내가 입학한 경북대학교에서 3년 동안 적을 두고 겨우 두 학기를 마치고 부산대학교에 편입하여 6학기를 보냈다. 그러니 나의 대학 시절은 20대 후반이었다. 초·중·고 동기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나는 책가방을 끼고 늙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것이다. 부산대 나의 동기와는 5 내지 6년이나 나이 차가 있었다.

내가 경북대 국문학과에서 부산대 국문과로 편입하게 된 것은 나의 말 외 삼촌이신 행정 이상헌(杏丁 李商憲 本名 渭應) 교수께서 부산대 국문과에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옮겨 온 것이다. 나는 행정 선생님과 기거를 같이 하고 수발을 들면서 선생님의 서재를 지켰던 것이다. 당시 행정 선생님은 책을 좋

아하시었고 장서가로서도 학계에 알려진 분이시었다. 선생은 국어학 중 음운론을 전공하셨는데 국내외의 전공 서적은 물론 한국학 기본 자료인 이름 있는 고서도 많이 소장하시었다.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노걸대』, 『간이구급방언해』 등 귀중한 국어학 자료뿐만 아니라 『유씨 삼대록』, 『옥린몽』, 『설인귀전』, 『유한당언행록』, 『화양어록』 등 미소개 고전문학 자료도 많이 소장하고 계셨다. 그런 서재에서 거처하다 보니 문자 그대로 “목유이염”(目濡耳染), 즉 눈에 젖고 귀에 익었던 것이다. 외국어 독해력도 대단하셨고 우리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한문과 초서 해독에도 높은 안목을 가지신 분이였다.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모두가 즉석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 때 공구서로서 유명한 중국의 『연감유함(淵鑑類函)』, 『패문운부(佩文韻府)』, 『운부군옥(韻府群玉)』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던 것이다. 나는 행정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대학 학부시절에는 국어학 서적을 주로 탐독하였다.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도 어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외국 전문 서적으로는 다니엘 존슨의 『음성학개론』을 비롯하여 파이크의 『음성학』,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 나이다의 『형태론』 뒤늦게는 블룸필드의 『언어학』도 펼쳐 보기도 했다. 람스테트의 『조선어 문법』의 서문에 나오는 “유진걸(柳震杰)”이라는 분이 집안 할아버지벌이 되는 어른이어서 탐독하였고 그 두 분이 기념으로 찍은 사진도 아직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원서들은 모두 행정 선생님의 서재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간에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 II

3학년 2학기 때의 일이다. 나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자료실에서 천만 뜻밖에 종종 때 사람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 책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국어학사 시간에 배웠던 그 『훈몽자회』의 책판이 어찌해서 우리 부산대학에 와 있는가 참으로 흥미를 끄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거제도에서 입수된 것을 알고서 먼저 현지를 답사하여 그 보존 유래를 찾았고 책판의 현존 실상을 면

밀히 검토한 다음 그 판본을 알기 위해 방중현 교수의 논문을 근거하여 대조해보니 제3기본인 김형규교수본과 거의 일치했으나 방점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 김형규 교수택을 방문하여 선생과 더불어 대조해 보니 이 부산대 책판은 김형규교수본의 책판임이 확인되었다. 다시 최현배 선생님택을 방문하고 『한글갈』에 언급한 고성본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당시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시골뜨기 학생인 나를 대문 앞까지 배웅해 주신 최현배 선생님. 그 더운 여름날 김형규 교수님택에서 선생님과 함께 마셨던 시원한 미숫가루 한 그릇. 고명하신 대가의 풍도가 이제금 새롭다. 최세진의 일생을 알기 위해 밤이 늦도록 『중종실록』을 읽어가면서 자료를 뽑았고 그것으로 최세진의 연보를 만들어 발표도 했던 것이다.(이를 계기로 18년 동안에 『조선왕조실록』 48책의 책장을 다 넘겼다.) 이렇게 당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1963년에 학계에 보고했던 것이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 학문하는 방법을 나름으로 체험하고 나니 한국 문헌에 대한 관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던 것이다. 마침 그 무렵 부산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고서가 2만 여 책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라는 주문이 왔다. 나이 30이 다 되도록 돈 한 푼 못 버는 신세인지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선뜻 허락했다. 처음은 당황하였으나 내용을 훑어보니 참 재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졸업을 하고도 2년 동안 임시 직원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책들이 거개가 영남지방 간행 문집들이어서 많은 국학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다. 정말로 나에게서는 행운이었다. 이는 내가 커 온 우리집 가풍과 가학에도 물론 나의 적성에 꼭 맞는 연구 분야였다.

만학의 나에게서는 행정 선생님의 서재에서 6년 동안 인간과 학문의 길을 배웠고 『훈몽자회』 책판과의 만남과 그리고 부산대 도서관의 고서 정리 이 세가지가 계기가 되어 한평생을 한국 문헌에 대한 연구로 일관하게 되었다.

## III

『훈몽자회』의 책 고증으로 흥미를 얻게 되어 늘 영남 지방 간행의 도서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영남문헌록』 경남편(국어국문학 28집 1965)을 발표하면서 영남 지방의 출판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쏟게 되었다. 『경남지방 출판문화연구』(『행정이상헌교수환갑기념논문집』, 1968), 『성호 이익의 문집간행고』(『요산김정한교수환갑기념논문집』, 1969), 『영남지방간행 전적의 통계적고찰』(『부산대 교양과정부논문집』, 1972) 등 일련의 출판 관계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래서 목판본, 활자본, 석판본, 영인본 등의 성질을 밝혀야 했고 문헌에 담은 문자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어 급기야 한국 유불가에 쓰인 구결을 정리하게 되었고 약자 속자에 대한 것은 물론 문자의 서체, 문장 부호까지도 발굴 정리해야만 했다. 문헌의 형태론적 이해와 아울러 그 생성 과정을 밝혀야 했다. 그래서 인쇄 방법과 인쇄 기술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종이 생산까지도 밝혀야만 했던 것이다. 이들에 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두 품이 많이 들어야 밝혀지는 과제였다. 남이야 무엇이랴 하든 개의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문헌을 이해하는 기초 지식을 얻고 나니 문헌 속에 담겨진 연구 자료가 눈에 보이었다. 그래서 내심에 영남 지방 국어국문학 자료를 발굴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남의 문헌 자료 목록 만들기, 외래 문헌의 수용과 번역 주석의 문제, 나아가 동북아시아 3국의 문헌 교류사 서술의 꿈을 펼치게 되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일어나게 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출판인 방각본과 그 출판문화에 관심이 들어서 우선 완판방각본에 손을 대어 학위논문으로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1981)를 발표했던 것이다. 나아가 문헌의 변이 과정, 생성 배경, 번역 주석, 문헌 미학 등에 관심을 두고 써어지는 대로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문헌에 대하여 연구 발표한 논문을 내가 구상한 문헌학 체계로 類別하여 만든 것이 바로 『한국 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다.

## IV

당시까지 내가 쓴 논문이 40여 편이었는데 그 중 32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32편의 논문을 가지고 막연하게 추구해 온 나의 문헌학 체계를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인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삶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며 이 구체적 표현이 가시적 언어 형식으로 고정되어 영속화된 물증이 곧 「文獻」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분별없이 쓰고 있는 도서, 서적, 전적, 책 등을 포괄할 뿐 아니라 금석문에 쓰여진 문자들도 이 문헌의 개념에 포괄된다. 삶의 체험을 언어형식으로 고정하고 영속화시킨 물증인 문헌을 형식, 성질, 변화, 전승, 판별, 고증 번역, 주석 등을 이론화 체계화하는 것이 문헌학인 것이다. 이는 가시적 (언어)형식으로 존재하는 문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식된 것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학은 방법론적 학문의 성격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고 내가 추구하는 문헌학의 개념을 밝혀 두었다. 그러나 의사 표현의 물질적 결과물이 문헌이라면 의사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문헌의 발생 원리에 대한 고뇌가 일기 시작했다.

## ○ 문헌의 발생 원리 추구

이것은 지금 고민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주제이다. 문헌의 발생에 대한 한국 문헌 이론의 정립이다. 문헌이란 의사(意思)의 표현이고, 의사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나라 옛 선비들이 마음 공부, 즉 심학(心學)의 학문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들이 공부했던 '심학'에서 문헌의 발생론적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퇴계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펴 들었다. 문득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와 제7도 「심학도(心學圖)」에 눈이 멈추어졌다. 그 두 그림은, ‘마음은 성정을 통섭(統攝)한다.’는 내용과 ‘마음은 허령(虛靈) 지각(知覺) 신명(神明)한 것으로서 일신을 주재한다.’는 내용을 각각 그림으로 풀이한 개념도이다. 허령 지각 신명한 마음이 적연불동(寂然不動)하여 정(靜)으로 있으면 그것이 성(性)이 되고, 감이수통(感而遂通), 즉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감통(感通)하여 동(動)이 되면 그것이 정(情)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구애(具愛)의 이(理)인 인(仁), 구경(具敬)의 이(理)인 예(禮), 구의(具宜)의 이(理)인 의(義), 구별(具別)의 이(理)인 지(智), 구실(具實)의 이(理)인 신(信)은 미발지성(未發之性)이고 마음의 주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충동에 감응하면 측은(惻隱)한 마음·사양(辭讓)하는 마음·수오(羞惡)의 마음·시비(是非)의 마음·성실(誠實)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발지정(已發之情)이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정(靜)이요, 미발(未發)이요, 이(理)요, 관념(觀念)인데, 어떤 충동이 일게 되면 그것은 동(動)이요, 이발(已發)이요, 기(氣)요, 실체(實體)가 된다. 이렇게 감이수통(感而遂通)하게 하는 주체는 의[意志]라고 했다. 성(性)의 발현이 정(情)이 되고, 허령 지각 신명한 마음이 정(情)을 통섭하여 발현되게 하는 것이 의(意)이며, 그 의(意)의 정향(定向)이 지(志)라고 했다. 그래서 의지(意志)는 마음의 중간 경영자이며 우리가 말하는 의사(意思)란 바로 이것인 것이다(順菴 安鼎福의 말). 그러므로 이 의(意)에 의해 발현된 정(情)이 언어(문자)를 매개로 물질적으로 정착된 실체가 바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 ○ 문헌 연구의 지표와 방법

이렇게 생성된 문헌은 의사전달의 사회적 계약물이고, 시간과 공간의 두 축 속에서 변화를 겪는 한편 그 변화의 흔적을 내부화하면서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헌에 따라 본래의 모습에서 변화를 겪는 사례들이 다수 생겨난다. 이

런 문헌의 경우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헌학의 지표이다.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문헌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찾아내는 학문. 즉 ‘인식되어진 것에 대한 재인식’이 문헌학이라 할 수 있다. 그 문헌이 갖는 최선의 모습을 찾는 것이 문헌의 정당성 추구이며, 변화 변천 속에 형성된 실체를 분석하여 생성 당시의 모습과 변모의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 문헌의 순수성 추구이다. 따라서 문헌학은 실증적 방법을 떠날 수가 없다.

### ○ 나의 방법론적 체계

그러면 문헌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찾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20년 동안 문헌에 대하여 발표했던 32편의 논문을 다음과 같은 항목 속에다 분속시켰다.

- (1) 문헌본성론적 접근
- (2) 기사양태론적 접근
- (3) 배경유통론적 접근
- (4) 변화전승론적 접근
- (5) 고핵실증론적 접근
- (6) 원전비평론적 접근
- (7) 번역주서론적 접근
- (8) 문헌발굴의 현장

문헌의 형태서지론·인쇄기술론·편찬조직론은 소위 서지학의 영역이라 해서 제외하고 문헌의 조사 발굴이란 뜻에서 마지막 ‘문헌발굴의 현장’을 붙였다. 그리고 장마다 ‘서설’을 붙여서 장차 지향해야 할 방향과 문제들을 지적하여 나의 문헌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 고민이 생겼다. 여기 실린 32편의 논문은 주로 국문학 문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국 문학의 문헌학적 연구에 가깝다. 그래서 ‘국문학의 문헌학적 연구’로 할까 망설였다. 그러나 앞에 붙인 서설이나 분류체계는 내가 지향하는 한국 문헌학의 골격이요 그것을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한국문헌학연구’가 더 적절한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고민 끝에 『한국문헌학연구』로 결정하고 부제를 <국문학 연구의 기초>라고 붙였다. 이렇게 문헌학의 저서를 내고 나니 나의 전공이 무엇이나고 힐문하는 말이 사라졌다. 그후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줄곧 문헌학 이론 정립에 힘써왔다. 그 결실로, ‘문헌은 의사전달의 매체이며 정보의 적층물’이란 관점에서, 문헌을 다루기 위한 기초지식인 치서(治書)의 단계와 문헌의 본질 규명인 치학(治學)의 단계 12영역으로 정리한 문헌학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 (1) 문헌형태론(文獻形態論) \* 문헌 형태의 발전과 그 존재 양상의 이해
- (2) 조직편찬론(組織編纂論) \* 문헌의 짜임새 및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결구 형식과 편집 양상의 필연적 구도의 이해
- (3) 인쇄기술론(印刷技術論) \* 문헌의 인쇄 방법과 기술의 이해
- (4) 기사양태론(記寫樣態論) \* 기록 문자의 이해와 표기방법의 이해
- (5) 수장보존론(收藏保存論) \* 문헌의 수집 분류 보존의 시공적 이해
- (6) 문헌성질론(文獻性質論) \* 사본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 영인본 등의 성질 이해

이상 6분야는 문헌 연구를 위한 기초적 이해인 치서(治書)의 단계이다.

- (7) 배경유통론(背景流通論) \* 문헌의 생성 배경과 보급에 대한 연구
- (8) 변화전승론(變化傳承論) \* 공시적 事象의 변화와 통시적 事象의 전승에 대한 연구
- (9) 진위판별론(眞僞判別論) \* 문헌진 사실을 밝혀 진위를 가려내는 연구
- (10) 원전비평론(原典批評論) \* 원문비평과 텍스트 분석에 의거한 연구
- (11) 주석번역론(註釋翻譯論) \*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주석과 다른 언어체계로의 전환인 번역에 대한 연구
- (12) 문헌미학론(文獻美學論) \* 문헌양식의 미학적 접근

이상 6분야는 본격 문헌 연구이며 즉 치학(治學)의 단계이다.

나는 이렇게 한국 문헌학의 체계를 만들어 보았다. 이러한 문헌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따르지 않고는 한국 문헌학은 학으로서의 존재가 위태로운 것이다. 나는 여기 선인들의 연구물에서 문헌에 관한 주옥같은 편린을 주어 모아 문헌의 발생론을 좀더 깊게 천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 문헌학 원론』이라는 이론서를 내고 싶다.

## V

내가 추구하는 학문은 문헌학이고, 나는 스스로를 문헌학자라 한다. 문헌학이 그리 대단한 학문이 아닐 수도 있고 문헌학자인 나의 학문이 웅색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헌학이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점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문이란 체계적 인식이 아니고서는 학으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본 것이다. 문헌학은 기초 학문이기에 그다지 화려하지도 주목받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말 학문다운 학문, 학자다운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큰 학자가 되기 위해 내가 문헌학에 힘을 쏟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학문이 튼튼해지고 학자다운 학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 학문이라고 여기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하나라도 열심이어야 한다고 믿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